

1 주 - 노래함

1 주 - 1 일 - 노래함으로 영을 훈련함

엡 5:18b-19 영 안에서 찬만해지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시를 읊으십시오

고전 14:15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도 기도할 것이며, 나는 영으로 찬송하고 생각으로도 찬송할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부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상을 주셔서,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우리와 주님의 비밀하고도 놀라운 관계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열어서, 영을 훈련하고,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때때로 우리는 노래를 하는 것이 더 좋다.

우리는 짧게 합창으로 큰소리로 노래해도 좋고 또 우리는 또한 조용히 시를 노래할 수도 있다. 엡 5:19, 골 3:16 모두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을 하라고 말한다. 길이로 말하면 시가 가장 길고, 그 다음이 찬미이며, 영적인 노래들이 가장 짧다. 모든 집회에서 우리는 영으로, 영으로부터 많은 찬송을 해야 한다.

우리는 몇 개의 합창을 암송하여 항상 영 안에서, 영과 함께 항상 불러야 한다. 청년들이 운동을 할 때, 그들은 농구, 야구, 축구등을 한다. 이유는 그 것들이 몸을 위한 좋은 훈련이기 때문이다. 이 운동에는 공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을 훈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노래하는 것이다. 이 공과 같은 것이 “합창곡”이며, 이 합창을 통해 항상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우리는 입이 열리고 영이 열리게 된다.

최근 우리는 몇 개의 찬송가를 준비하고 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몇 성도들을 일으키시어 에베소서 각 장을 찬송가로 만들면 좋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일 때, 에베소서의 모든 장들을 노래할 수 있다. 계다가 로마서 1 장, 골로세서 1 장등을 찬송가로 만들면 좋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시편을 찬송으로 만들지만 신약의 찬송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노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더 노래할 수록 더 우리의 생각에서 나와 우리의 환경을 잊게 된다. 더 노래하면 할 수록, 더 우리는 영 안에 들어가고, 더 영 안에 있으며, 더 영이 열리게 된다. 이는 내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다. 이는 영의 생각이며, 바울의 생각이다. 엡 5:18-19 에서 바울은 우리가 영으로 찬만하고, 노래함으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화답할 때, 우리 영이 훈련되고, 그 영이 흘러나오게 된다. 우리는 음악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노래해야 한다. 우리는 박자, 음정등의 음악성은 잊어버리고, 다만 영 안에서 노래해야 한다. 잘하고 못하고를 잊어버리고, 다만 노래하라. 우리는 노래로 어떻게 주님을 찬미하는지 배워야 한다. 찬송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길거리나 차 안에서 노래할 수 있다. 이는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시되어 있다. 구약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 그들은 시온의 길 위에서 노래하였다. 성도들이 집회에 오기전 차 안에서 기도한다면, 모든 집회들이 하늘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잊고,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기도, 찬양, 노래하기를 훈련하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주님 자신이신 그 영께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해방되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 자라고,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는 가르침, 교리, 지식이 아니라 영을 해방함으로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을 훈련하는 것을 배워, 계속 자라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스도께 참여해야 한다. 이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다.

1 주 - 2 일 - 찬송가를 배움

고전 14:26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찬송가를 알기위해 우리는 찬송에 관한 몇가지 중점이 알아야한다. 첫째, 어떤 찬송은 삼일하나님의 축복과 체험에 관한 것임을 알아야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축복이란 삼일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경배를 의미한다. 삼일 하나님을 축복하는 좋은 예가 3장의 “영광 영광 하나님께” 가 있으며, 체험에 관한 찬양은 “아버지, 아들과 그영 이 어떤 비밀인가” 등이 있다. 또 다른 범주는 아버지를 찬양함, 아들을 찬양함등이 있다.

또 다른 찬양의 중점 중 하나는 그 영에 충일함(에(Filling) 관한 것이다. 누군가가 이를 그영의 충만함(Fulness)으로 이야기하지만, 충만함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표현하는 것이며 충일과는 좀 다르다. 성경에 의하며 그 영의 두가지 충일함이 있다. 내적인 채움과 외적인 채움이다. 헬라어로 플레루(pleroo)는 내적인 충일함이며, 플레토(pletho)는 외적인 충일함이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동일시됨(identification)에 관하여 알아야한다. 동일시는 연합보다 더 좋은 말이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하나이다. 우리 찬송 중 이부분에 관한 많은 찬송가가 CMA(Christian Missionary Alliance)의 설립자 A.B. Simpson 에 의해 쓰여졌다. 이 심오하고도 뛰어난 A.B. Simpson 의 찬송들이 오히려 오늘날 CMA 교회들에서 불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찬송에는 Simpson 의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를 체험함도 찬송의 중요 주제중 하나이다. “오 어떤 생명, 어떤 평안인가”와 “오 영광스런 그리스도 내주”도 이런 찬송들이다. 우리는 또한 속 생명, 교회생활, 구원의 확신, 헌신, 고난중 구원 등등에 관한 많은 찬송을 알아야한다.

우리는 또한 영적인 전쟁과, 복음, 집회의 의미, 영광의 소망, 긍정적인 표현등에 관한 찬송도 알아야한다. 우리는 찬송을 알기위하여 모두 일어나야한다. 나는 우리 모두가 찬송가를 읽고, 찬송가에 익숙해지기 원한다. 삼, 사십년전만해도 주의 상 집회가 매우 엄격했다. 만찬에 대한 주제에 조금만 벗어나도 허락을 하지 않았다. 주의 상집회에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전람함으로 그분의 인격을 기념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전람하고, 표현함으로 그분 자신의 인격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에관한 두 부류의 찬송들이 있다.

1) 주의 상이 주님의 인격에 관련되어 성도들이 그분께 감사하는 것 2) 그분의 죽음을 진열하는 찬양.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안다면 찬양을 선택할 때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시간을 드려 찬송가를 연구하기 원한다. 찬송에 관한 지식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며, 모든 집회를 더 풍성히 할 것이다. 성도들이 집회에서 올바르게 선택할 때 이를 교정하거나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 가끔 이러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 유익하지 않다. 내가 바라기는 몇 인도하는 형제들이 찬송에 관하여 몇 주동안 십분이나 십오분쯤 시간을 들여 가르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함으로 장기적으로 성도들이 찬송가를 고르는데 더욱 좋아질 것이다.

형제 자매들은 찬송 테잎을 구입하여 매일 가정에서 들어야 한다. 형제들이 운전할때도 찬송을 들을 수 있다. 자매들은 가정에서 가사를 할 때, 찬송을 들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배울 때, 모든 집회에서 영을 해방하여 찬송할 수 있다.

1 주 - 3 일 - 가정집회와 그룹집회에서 찬송을 부름

엡 5:18 -19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 지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시를 읊으며

엡 5:18 은 말한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 지십시오”. 우리가 영으로 충만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찬송을 불러야 한다. 우리가 영안에서 충만케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현 될 것이다. 우리는 찬송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언제나 찬송을 한다. 내가 매일 아침 걸을 때 마다 나는 찬송한다.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나는 음악에 관하여는 가장 소질이 없지만 찬송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좋아한다. 나는 항상 음정에 맞지않게 찬송을 하곤한다.

우리에게 아주 많은 찬송곡들이 있음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한가지를 예로 든다면, 나는 찬송가 하나를 불렀다.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네.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필요한 바로 그분이라네.’ 나는 이 찬송을 1947 에 작사했다. 나는 그 기간 동안 상해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다. 집회가 끝난 뒤에 나는 경치가 좋은 곳에서 하루를 쉬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거니는 동안 어떤 멜로디들을 입으로 흥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그것에 대하여 감상하고 있는 그 때 이 가사의 3 절이 나에게 떠올랐다.

이 세상은 매우 크고 내 마음은 아주 작지만

이 큰 세상의 모든 부를 다 준다해도내 작은 마음을 채울 수는 없다네.

나는 6 세 이상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 이 구절을 부르기를 원한다. 당신의 찬송은 너무나도 점잖다. 너무나 점잖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내가 하는 것처럼 찬송할 수 있다. 나는 음악의 모든 규정을 깨뜨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영을 일으킨다. 모든 노 자매들은 가정집회에 가서 찬송을 해야한다.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불태워야 한다. 다만 젊은 사람들만 불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연장자들이 집회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가정 집회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연장자들이 찬송을 한다면 그들의 찬송은 집회를 살아있게 만들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모든 연장자들이 나에게 배우기를 원한다. 너무 점잖게 찬송하지 말라. 우리가 규칙들을 깬다면 많은 경우 우리는 더 잘 찬송할 수 있다. 내가 오늘 이 무리중에서 가장 연장한 사람이지만, 나는 찬송을 잘 부르지 못함에도 나는 생명의 방식으로 찬송한다. 제발 노숙한 신사와 숙녀처럼 행동하지 말라. 당신은 용감하게 찬송해야 한다.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찬송을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나의 모든 질병이 없어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찬송을 주셨는지... 주님을 찬양한다. (*Key Points on the Home Meetings*, pp. 37-41)

우리는 이제 그룹 집회를 하는 방식에 대하여 숙고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집회에 오기 전에 이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을 찬송하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집에서 말하고 찬송하는 것은 매우 좋다. 남편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고 말하면 아내가 “온종일 주를 찬송하며” 라고 화답할 수 있다. 또 아내는 “열린 휘장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 거기엔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다네” 라고 말하면 남편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왕 앞에서 생활한다네” 라고 화답할 수 있다.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말 할 것이 있을 것이다. 소 그룹 집회는 7:30 에 시작하지만, 부부가 저녁식사 시간인 6 시 부터 찬양하다면 소그룹 집회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집회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집회 장소로 가면서도 지속 될 수 있다.

내가 집회 장소에 갔을 때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어도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 그룹 집회는 아주 즉각적으로 말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 될 수 있다. (*Exercise and Practice of the God-ordained Way*, pp. 230-231)

1 주-4 일 - 교회 집회에서 찬송합

계 5:8 어린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을 때,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는 각각 수금과 향들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들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9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들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당하였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시 45:8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우리의 집회는 찬송이 너무도 부족하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찬양해야 한다. 내가 집회에서 말하거나 다른 이들이 집회에서 말 할 때 어떤 시점에 당신은 찬송을 시작해야 한다. 어떤 시점에 그 영께서 당신을 감동 하셔서 당신이 황홀경으로 들어갔을 때 찬송을 시작한다면 온 회중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 계시록 5 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길 “당신은 자격이 있으십니다”라고 한다. 그들은 설교하거나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찬송하고 찬송했다. “어린양께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네 생물들은 “아멘!”이라고 했다 우리가 다만 찬송만을 하는 집회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한 찬양은 당신을 황홀경으로 이끌 것이다. 당신은 세째 하늘에 있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은 당신의 발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시편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가장 의미있는 것은 하프 소리로 상징된 찬송과 찬미이다(시편 45:8).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는 이 시편의 성취 이다.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많은 지방 교회들이 여러 지역들에 산출되었고 이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송과 찬양이 나온 것이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교회들은 상아로 만든 궁전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 부활 안에 있다. 이 거쳐에는 항상 찬송이 있어야 한다. 이 음악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히 2:12; 엡 5:19; 골 3:16).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 기도하는 것은 수다를 떠는 것보다 어려우며 어떤 면에서 찬송하는 것은 더 어렵다. 우리가 영안에 있지 않을 때 찬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 있다면 그것은 쉽다. 우리가 더 찬송할 수록 더 영 안에 있게된다. 우리는 넘치도록 항상 찬송을 해야한다. 우리의 집회에서 말하는 것보다 찬송이 더 많아야 한다.

교회가 부활 안에 있음으로 우리의 찬송도 부활 안에 있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천성적으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적으로 천연적으로 찬송을 해서 안된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음악적인 것을 생각하거나 음악적으로 찬송하려 해서 안된다. 이것은 찬송을 죽일 것이다. 대신 우리는 영적인 방식으로 찬송해야 한다.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찬송을 배우고 암기함으로 몇 구절 기억하고 후렴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찬송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고 활력적이며 적극적인 집회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으며 모든 형식과 문자에서 해방될 것이다.

영을 훈련하는 바른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찬송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을 때가 있다. 우리가 아침에 찬송을 하려 한다면 우리의 영은 훈련 될 것이다. 우리가 더욱 찬송을 하면 할 수록 영은 더 해방되며 강화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더 집중되며 우리의 의지는 굴복되고 우리의 감정은 정화될 것이다. 합당한 방식으로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 감정, 의지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천연적인 생명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이다. 우리가 영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찬송 할 것이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주님을 찬송할 어떤 찬송이나 노래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찬송과 찬양은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간증할 것이다.

요한과 찰스 웨슬레는 매일 찬송하였다. 우리가 단 삼십분 만이라도 매일 찬송한다면 우리의 영은 매우 강화될 것이다. 교회의 집회들은 더욱 살아있고 강하게 될 것이다. 집회는 충격력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넘치는 것이 집회에 있기 때문이다. 시편 45 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는 두가지 를 가져야 한다. 넘쳐흐름과 현악을 수반한 찬송이 그것이다.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찬송이 넘쳐 흐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아 궁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금을 가질 것이며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으로 조성 될 것이다.

1 주 - 5 일 - 일상 생활에서 말씀을 노래하고 시로 읊기

골 3: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엡 5:18b-19 영 안에서 찬만해지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시를 읊으며,

골로새서 3 장 16 절에서,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거하다”는 말씀은 “거처를 정하다”라는 뜻이다. 이 구절에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는” 이 단어들은 “거하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허락하는 길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가 더 많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많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할 것이다.

에베소서 5 장 18 절 하반부부터 19 절까지에서 “영 안에서 찬만해지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시를 읊으며”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은 화답하고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문제이다.

골로새서 3 장 16 절과 에베소서 5 장 18 절, 19 절에서 보듯이 우리의 성경 읽기는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 성경 읽기를 누리는 최상의 길은 저절로 일어나는 멜로디로 말씀들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것이 달콤한 체험이다. 단지 성경의 말씀들을 암기하는 대신에 우리는 말씀들을 노래해야 한다.

아침에 말씀을 기도로 읽고 구절들을 노래로 읽으면,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죽이고 우리 속사람을 보양함으로 자라고 힘있게 됨으로써 온 종일 건강한 영적인 신진대사를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인 생활을 사는 합당한 길은 하나님, 그리스도, 그 영 과 신성한 생명의 체현인 성경 안의 말씀을 접촉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노래함으로 그리스도의 요소들, 그분의 죽이는 죽음, 그분의 보양하는 부활을 받아 들일 수 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죽이심과 보양하심과 죽음과 생명의 운행하심을 항상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동행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발췌 : 건강한 말씀, 8 장 1 과)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우리가 노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러 해 동안 성경을 읽어 왔다. 당신은 단지 읽음으로써 뿐만 아니라 또한 노래함으로 성경 구절을 취하는 실행을 해 왔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라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것을 노래하라고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회복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읽는 데 까지 계속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노래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골로새서 3 장 16 절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주어진 명령이다.

우리가 수년동안 골로새서를 읽어 왔지만 노래함으로 말씀을 취하는 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이기를 주장한다. 그러나 온전히 성경적이 되는 대신에 그들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이다.

우리는 말씀을 단지 집회에서 노래할 뿐 아니라, 특히 우리 일상 생활에서 노래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는 집에서 말씀을 노래해야 한다. 당신이 홀로 당신의 방에 있을 때나 다른 이들과 함께 식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라. 말씀을 노래하는 것은 영을 사용하는 뛰어난 길이다. 기도하는 것이 영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노래하는 것은 영을 사용하는 특별히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산 말씀으로 적셔져 그리스도를 살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골로새서 3 장 16 절에 있는 바울에 의해 추천된 실행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생각으로 부터 오는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래하는 것과 시를 읊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영으로 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지혜에 의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여금 풍성한 방법으로 우리에게서 사시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시로 읊어야 한다. 말씀을 노래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보다 나으며, 말씀을 시로 읊는 것은 말씀을 노래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시로 읊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누리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말씀을 시로 읊을 때, 우리는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누림으로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적실 기회를 더욱 갖게 한다. 만일 우리가 단지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가 읽는 부분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와 우리의 존재를 적실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씀을 노래하고 특히 그것을 시로 읊는다면 우리는 말씀에게 보다 완전히 우리의 존재를 열어 줄 것이며,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 우리를 적실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테디 40 장)

1주-6일-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시로 읊음과 감사함으로 실행함

골로새서 3:16-17 은갓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에베소서 5:18-19 절은 골로새서 3:16 절과 병행한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시를 읊으며,”라고 말한다.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은, 바울은 골로새서 3:16 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에베소서 5:18 에서는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함께 볼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영 안에서 충만해져야 한다. 이 두 부분의 말씀들은 동일한 목적, 곧 우리의 영은 말씀과 함께 채워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마치 가솔린이 필요한 자동차로 비유할 수 있고, 말씀 곧 성경은 주유소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가 비워있다고 느낄때 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와서 채워질 필요가 있다. 말씀안에서 우리는 고갈될 줄 모르는 영적인 가솔린 공급을 얻는다. 이러한 가솔린을 우리의 존재안으로 주입하는 길은 바로 말씀을 찬송하고 시로 읊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다른이들에게 분명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말할 것이다. 우리는 찬송과 말씀을 시로 읊는 것이 기도로 말씀을 읽는것 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찬송하고 시로 읊는다면, 우리는 종교의 영향, 곧 우리를 형식적인 방식으로 모임에 오게하는 영향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매일매일 말씀을 찬송하는 습관을 세우자. 그럴때 우리의 집회들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종류의 의식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생활을 집회에서 전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집회들에서 전시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살아내는 것들이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 말씀을 찬송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들에서도 찬송해야 한다. (Life-study of Philippians, Chapter 40, pp. 357-358)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함에 있어서, 나의 주된 부담은 집회들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살아 있는 말씀으로 적셔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영의 풍성한 공급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누려야 한다. 지난 과거에 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찬양해야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적셔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었다. 내가 많은 시간에 걸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여, 많은 숫자의 성경에 노트를 기록하였지만, 나는 내가 말씀을 찬송하거나 시로 읊을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에베소서 2 장을 읽는 것은 한 방면이지만, 그것을 기도로 읽는다는 것은 또 다른 방면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강조 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은 기도로 읽는 것보다도 훨씬 좋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찬송하고 시를 읊은다면, 우리는 더 많이 쫓겨지고,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더 많이 적셔질 것이다.

이러한 말을 단지 메세지로 접하지 말라.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교리로서 받아드려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이것은 단지 교리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온전케 하는 훈련에 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 한다. 다른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모두 기도로 통과하는 것이다. 그 후에, 기도로 통과 할 뿐 아니라, 찬송으로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로 읊음으로 통과 할 수 있다. 시로 읊음은 찬송처럼 많은 멜로디가 필요없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음으로 시를 읊을 수 있고, 심지어는 고르지 못한 모든 음으로도 읊을 수 있다.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볼 것이다. 거기에는 분명히 신성한 요소를 받아들이는 달콤하고 강건케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만약 우리 모두가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시로 읊고, 말씀을 통하여 감사한다면, 교회생활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내가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다. 단지 이러한 세, 네가지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가치있다. 첫째는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살아내는 것이다. 둘째는 그 분은 그 영이시다. 셋째는 그 분은 말씀이시다. 마지막으로, 그 분은 우리가 기도와 찬송과 시로 읊음과 감사함으로 말씀과 그 영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모두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신성한 성분과 빛과 생명과 사랑과 거룩한 성분과 우리가 필요한 모든 신성한 요소로 주입받는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그것이 말씀을 참되게 감상하는 것이다. 말씀을 감상한다는 것은 단지 깊이 숙고하거나 말씀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감상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누리하는 것이다. 말씀을 감상하는 최상의 방법은 찬송하는 것이다. 깊이 감상하는 것이 시로 읊는 것이다. 시로 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누림을 줄 것이다. 감사함은 마치 결론을 맺는 것과도 같다.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하고, 찬송해야 하고, 시로 읊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Perfecting Training, Chapter 17, Section 3)

[All ministry excerpts in this handout are by Witness Lee, copyright, Living Stream Ministry, Anaheim, CA. All Rights Reserved.]